

신태용 감독, 손흥민 딜레마 풀까



'하얀' 손흥민(토트넘)은 대부분 뜨겁다. 세계 최고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상위권에 드는 토트넘 핫스파에서 공격 한 축을 담당하며 간혹 골까지 터뜨린다. '하얀' 손흥민은 토트넘의 대표색인 흰색인 것에 착안해 생긴 말이다.

영국에서 필필 날고 있는 손흥민이지만 국가대표에 소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하다.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상대하는 선수들보다 한 수 아래 이들을 대면하지만 영 기운이 없다. 이른바 '빨간' 손흥민이다.

손흥민이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선수라는 점에 이견을 갖는 이는 없다. 내년 러시아월드컵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의 활약이 절실하다는 것도 모두가 안다.

자연스레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손흥민의 모습을 국가대표팀으로

현존 국내 최고 선수 불구 대표팀에서만 부진
소속팀 토트넘 경기 보며 해법 찾아... "투톱"
오는 10일·14일 2연전서 최전방 역할 예상

옮겨 오는 것은 신태용 감독의 숙제로 떠올랐다.

신 감독은 토트넘의 경기를 지켜보며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았다고 했다.

11월 A매치 명단 발표를 위해 30일 취재진 앞에선 신 감독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투톱으로 뛰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도 두 경기를 TV 중계로 보면서 많은 힌트를 얻었다"고 말했다.

신 감독이 언급한 두 경기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리그컵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EPL 경기로 보인다. 손흥민은 부상 중인데도 해리 케인을 대신해 최전방에 섰다. 웨스트햄전에서는 도움 2개를 기록했고, 맨유를 상대로는 시종 일관 뛰어나며 수비진의 빈틈을

찾으려 애썼다.

손흥민은 국가대표에서 주로 왼쪽 측면 공격에 섰다. 상황에 따라 간혹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도 했지만, 최전방의 역할이 주어질 경우는 거의 없었다.

힌트를 얻었다는 신 감독의 발언에 비춰볼 때 손흥민은 풀백비(10일), 세르비아(14일)와의 2연전 중 한 번 정도는 꼭짓점에서 경기를 풀어 나갈 전망이다.

물론 포지션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손흥민 뿐 아니라 그의 플레이를 빛나게 해줄 동료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신 감독은 "받쳐주는 선수가 누가 있는냐에 따라 손흥민의 기량에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한화 새 사령탑에 한용덕 전 두산 코치

3년 총액 12억...프랜차이즈 출신 선수단 소통 높은 평가

한국시리즈 3연패 달성이 좌절된 두산 베어스의 한용덕(52) 투수코치가 친정팀 한화 이글스의 지휘봉을 잡는다.

한화는 지난달 31일 '팀의 변화와 혁신, 리빌딩을 통한 젊고 강한 구단 구축을 위해 제1대 한용덕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한용덕 선임 감독의 풍부한 현장과 행정 경험이 팀 체질 개선은 물론 선수와 프런트 간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으로 판단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계약금 3억원에 연봉 3억원 등 총 12억원이다.

한용덕 감독은 1987년 한화 이글스(당시 빙그레 이글스) 연습생 투수로 입단해 프로통산 120승을 기록한 구단의 상징적인 선수로 활약했다.

2004년 현역 은퇴 후 현장과 프런트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2006년 한화 투수코치를 시작으로 2012년 후반기 감독 대행을 거쳐 지난 2013년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코치 연수를 받았다.

2014년부터는 구단 단장 특별보좌역을 지내며 프런트 업무를 경험했다. 2015년 두산의 투수 및 수석 코치 역할을 수행하며 소속팀의 한국시리즈 2연패에 기여했다.

한화는 프랜차이즈 출신 감독 선임을 통해 선수단 체질 개선은 물론 구단 비전 실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치 시절부터 많은 선수들과 교감하고 원활한 소통을 해온 만큼

빠른 시간 내 선수단 파악 및 구단 현안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용덕 감독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으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기쁘고 감사하다"며 "선수단, 프런트 모두 하루빨리 만나 내년 시즌을 즐겁게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에는 훌륭한 선수들도 많고 가능성 있는 젊은 선수들도 많다. 팀의 육성강화 기초에 맞춰 가능성 있는 많은 선수들이 주전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땀 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화는 한용덕 선임 감독을 중심으로 조속한 팀 재건 작업을 펼쳐 내년 시즌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이승우, 3경기 연속 교체출전 베로나, 인터밀란에 1-2 패배



이승우(19·헬라스 베로나)가 3경기 연속 교체 출전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이승우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베로나 스타디오 마르크 안토니오 벤티고디에서 열린 2017~2018 이탈리아 세리에A 11라운드 인터밀란과의 홈경기서 팀이 1-2로 뒤진 후반 34분 교체 투입됐다.

약 15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짧은 출전 시간 탓에 공격 포인트 달성에는 실패했다. 베로나는 보르하 발레로와 이반 페리시치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1-2로 패했다.

네 번째이자 세 경기 연속 교체 출전이었다.

투톱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은 이승우는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웃지 못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페넬타박스 근처에서 시물레이션 액션으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베로나는 전반 36분 보르하 발레로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 14분 지안파올로 파치니의 페널티킥 골로 균형을 맞췄지만, 후반 22분 이반 페리시치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패했다.

뉴시스

손흥민, 내일 호날두와 재대결

지난달 18일 후반 44분 교체 출전 탓 대결 펼치지 못해

손흥민(토트넘)이 다시 한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맞대결한다.

토트넘은 오는 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7~2018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H조 조별리그 4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격돌한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달 18일 조별리그 3차전에서 후반 44분 교체 출전한 탓에 호날두와 이렇다 할 대결을 펼치지 못했다.

손흥민은 지난 23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정규리그 첫 골을 기록했고 지난 26일 리그컵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도움 두 개를 기록하며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다만 토트넘은 골잡이 해리 케인의 부상이 걱정이다. 케인은 리버풀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 됐다. 케인의 부상이 길어짐에 따라 손흥민의 선발 출전도 점쳐지고 있다.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서 1골을 기록 중이다.



대회 3연패를 노리는 레알 마드리드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호날두는 지난 24일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지만 팀은 지난 30일 프리메라리가 10라운드 지로나 원정경기서 1-2로 역전패하며 주춤하고 있다.

토트넘은 H조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승점(7점·2승1무)은 물론, 골득실(+5), 다득점(7), 실점(2)까지 똑같다.

홈에서 열리는 만큼 내심 승리를 노리고 있다. 만약 토트넘이 승리한다면 조 2위까지 주어지는 16장 진출을 사실상 확정한다.

'2017 타이어뱅크 KBO 시상식' 6일 개최

KBO(총재 구본능)는 오는 6일 오후 2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2017 타이어뱅크 KBO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 시즌 KBO 리그 최고의 선수인 정규시즌 MVP와 신인상을 선정하고 KBO 리그와 퓨처스리그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도 뽑는다.

KBO는 정규시즌 종료 후인 지난 10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올 시즌 KBO 리그 최우수선수들을 대상으로 투표 실시했다. 총 107명의 투표인단이 참여했다.

MVP 후보는 규정이상이나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 또는 개인 부문별 순위 10위 이내에 있는 선수다. 신인상은 올 시즌을 제외

한 최근 5년(2012년 현역선수 최초 등록 기준)간 기록이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 이내이면서 해외 프로야구 기구에 소속되지 않았던 선수가 대상이다.

MVP에게는 트로피와 300만원 상당의 가이저자동차스텝(20터보드림에디션) 차량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신인상 및 개인 부문별 1위 선수, 우수 삼판위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퓨처스리그는 북부·남부 2개 리그에서 개인 부문별 1위 선수에게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2017 타이어뱅크 KBO 시상식은 SROTV와 KBO 공식 앱, 그리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생중계된다.

화순군
Hwasun County

10.27 - 11.12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

국화향연

2017 화순